KIEP 북경사무소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한중경제포럼
제19-02호 2019년 4월 25일

2019년 중국 양회(两会) 정부 업무보고 분석

2019년 제2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2019년 중국 양회(两会) 정부 업무보고 분석 2. 일　시: 2019. 3. 27(수) 16:00~18:00 3. 발표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순쉐궁(孙学工) 소장

1. 중국경제 정세에 대한 판단

❑ 중국경제는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 운영되어 2018년 거시경제 목표를 대체로 달성

- 2018년 경제성장률 6.6%를 기록하고 신규 일자리 1,361만 개를 창출 하였으며, 5% 내외의 실업률을 기록
- 인플레이션은 2.1%를 기록하고, 국제수지는 균형을 유지하였으며, 외자 이용액은 1,383억 위안을 기록함.
-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소비와 서비스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70%를 상회하였으며, 거시부채율은 안정세를 유지함.

❑ 단기적으로 경기둔화 우려

- 안정 속 변화와 변화 속 우려(稳中有变 , 变中有优)가 존재
  ◦ GDP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공업부가가치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각각 10년,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함.
  ◦ 그밖에 소매판매 증가율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M2증가율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주기와 구조적 문제가 중첩

◦ 세계경제 확장기가 정점을 기록하고, 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함.
◦ 자동차 산업이 단계적 시장 포화단계에 진입하면서 2018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6% 감소함.
◦ 중·미 무역분쟁 전망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큰 편임.
◦ 높은 부채율과 채무 리스크에 따른 우려가 큰 편임.
◦ 민영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대출 이자율이 높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부족하고 자체 혁신 능력과 핵심기술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생태환경 보호와 오염방지 보호 임무가 매우 중대함.

❑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발전 시기에 위치

- 전 세계가 100년 만에 마주하게 될 변화 속에는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임.
- 중국은 발전에 필요한 강인성과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양호한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것임.

❑ 2019년 주요 거시경제 목표

- GDP 성장률 6%~6.5% 달성
-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1,1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 5.5% 내외, 도시 등록 실업률 4.5% 이내 유지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 내외 유지
- 국제수지 균형 유지, 수출입의 안정적인 질적 발전 실현
- 거시 부채율의 기본적 안정 유지, 금융 리스크의 효과적 관리
-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 감소, 주민 소득 증진 및 경제 성장 추진
- 생태환경 개선, GDP 단위당 에너지소비 3% 내외 감축, 주요 오염물 배출량 감축

2. 중국 경제정책 방향

❑ 정책변화

- 단순한 경기부양책에서 거시정책과 구조적 정책의 결합으로 전환함.
- 거시정책 위주에서 거시와 미시정책 모두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국유부문에 대해 규제 강화 일변도에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국내외, 성장과 리스크 방지, 정부와 시장 등 3대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국내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국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기도 함.
  ◦ 중국은 발전을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경제건설 위주의 발전을 도모함.
  ◦ 발전은 과학발전과 질적 발전의 전략적 방향이며, 사회주의 생산성을 발전시켜야 함.
  ◦ 국제정세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나 중국은 전략적 방향을 유지하고, 확정된 목표와 전략적 배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해야 함.
-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방지 사이의 관계 균형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함.
  ◦ 장기간 누적된 리스크는 반드시 해소해야 하나 규정을 지키고,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함.
  ◦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리스크를 해소해야하며, 시스템적이고 지역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경제 둔화 압력이 큰 상황에서 안정적 예측과 성장, 구조 조정에 유리한 정책과 조치를 실시해야 함.
  ◦ 적절한 리스크 통제조치를 통해 디플레이션 효과의 중첩과 확대를 방지하고, 경제운용의 합리적인 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동시에 근시안적인 상황만 보고 중장기 발전에 영향을 주는 단기부양책을 실시하여 새로운 리스크 발생을 초래해서는 안 됨.
- 정부와 시장 간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주체를 활성화시켜야 함.
  ◦ 시장주체가 활성화되면 내생적 발전 동력을 높아지고 경제둔화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음.
  ◦ 이를 위해 △ 개혁개방 심화 △ 현대화된 시장 시스템 구축 △ 시장진입 기준 완화 △ 공정한 관리감독 강화 △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요

❑ 공급측 구조개혁 지속 추진

- 중국경제의 주요 모순은 여전히 공급부문에 있어 반드시 공급측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함.
  ◦ 공급은 수요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녹색성장 수요에 적응하지 못함.
  ◦ 공급시스템에 리스크 누적이 우려되며, 안정성과 안전성이 부족함.
- ‘공고, 증강, 향상, 원활(巩固 , 增强 , 提升 , 畅通)’ 8자 방침을 추진
  ◦ ① 생산과잉 산업의 퇴출 가속화 ② 전 사회의 비즈니스 원가 절감 ③ 인프라 분야의 유효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补)’[1] 성과를 공고히 함.
  ◦ ① 공정·개방·투명한 시장규칙과 법제화 된 비즈니스 환경 구축 ② 인센티브 제공과 구조조정을 통해 더 많은 우수기업을 발전시켜 미시주체 활력 제고
  ◦ ① 기술혁신과 규모효과를 통해 새로운 경쟁우위 형성 ②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발전을 통해 산업 가치사슬 수준 향상
  ◦ 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능력 강화 ② 국내시장과 시장주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확대, 금융과 실물경제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원활한 국민경제 순환을 통해 현대적인 시장 시스템을 구축
- 과잉생산 해소와 디레버리징으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은 미완성 상태임.

1) ① 삼거: 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 감소, 디레버리징, ② 일강: 비용절감, ③ 일보: 유효공급 확대

◦ 철강 분야는 3년가량 앞서 목표를 달성했고, 석탄 분야는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였지만 여전히 과잉생산 및 해결하지 못한 좀비기업이 존재함.
◦ 디레버리징은 거시부채율의 빠른 상승 억제, 기업부채율 감소 등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거시부채율은 아직 감소하지 않았고 기업부채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미시주체의 활력 제고

- 대규모 감세 실시
◦ 일반특혜성 감세와 구조적 감세를 동시 실시하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에 중점을 둠.
◦ 제조업의 부가가치 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송업과 건축업 등의 부가가치 세율을 10%에서 9%로 인하함.
-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부담 경감
◦ 도시 직원의 기본양로보험 기업 납부비율을 16%까지 인하함.
◦ 기존 징수방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되 지방정부는 과세체제 개혁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실제 납세부담을 높이거나 과거 미납세금을 집중적으로 추징하지 않음.
- 개혁을 통한 기업 관련 비용 인하
◦ 전력분야의 시장화 개혁 심화와 기타 부가비용 취소를 통해 제조업의 전기 사용원가를 인하하고, 공상업의 전기 요금은 평균 10% 인하함.
◦ 유료도로제도 개혁을 통해 통행비용을 인하하고, 화물운송 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심사와 혼잡비용 수취,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단속함.
◦ 2년 내 전국 성(省)간 고속도로 요금소를 없애고, 전자 징수 시스템 보급을 확대함.
- '팡관푸(放管服,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심화하고 제도적 거래비용 인하, 소프트 환경 개선을 노력
◦ 세계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고, 금지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비즈니스 환경 개선
◦ 2018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중국은 전년도 78위에서 46위로 상승함.
◦ 중국 600여개 도시에서 비즈니스 환경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즈니스 환경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함.

❏ 3대 핵심과제

- 구조적 디레버리징 기본방향을 견지함.
◦ 금융시장의 이상 변동을 방지하며, 지방정부 채무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여 새로운 리스크 발생을 방지해야 함.
- 빈곤구제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함.
◦ '먹고, 입는' 2가지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교육, 의료, 주거 안정' 등 3가지 보장(两不愁三保障)이 직면한 문제점 해결
◦ '삼구삼주(三区三州, 티벳·신장 남부지역·쓰촨 티벳 구역과 간쑤 린샤주·쓰촨 량산주·윈난 누장주)' 등 빈곤지역과 특수 빈곤층의 탈빈곤 업무 강화 및 재빈곤화 방지
◦ 차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정책지원 부족 등 상대적 역차별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

- 오염방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푸른 하늘 지키기(蓝天保卫战)’ 성과를 확대하고 2019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3% 감소시키며 중점지역의 PM2.5 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킴.

◦ 징진지 및 주변지역, 창장삼각주, 펀웨이(汾渭: 산시(山西), 산시(陕西), 허난(河南) 등 3개 성에 걸쳐있는 지역) 평원의 대기오염 관리를 지속하고 공업, 석탄 연소, 자동차 등 3대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북방지역의 청정 난방 조치를 통해 국민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함.

◦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2019년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암모니아질소 배출량을 2% 감소시킴.

❏ 제조업의 질적 발전 추진

- 전통산업 고도화 추진

◦ 제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 공업 인프라와 기술혁신 능력을 강화하며, 선진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강국 건설을 가속화함.

◦ 공업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를 통한 제조업 고도화 추진

◦ 기업의 기술개선과 설비교체 지원, 고정자산 감가상각 우대정책을 제조업 전 분야로 확대함.

- 신산업 발전 촉진

◦ R&D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바이오 의약,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 신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디지털경제를 발전시킴.

◦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감독을 견지하고, 신유망업종과 새로운 방식의 발전을 지원하며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을 촉진함.

- 각 산업 분야에서 '인터넷+'를 추진

◦ 인터넷 속도 향상과 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도시 가정용 광대역 인터넷 속도를 기가급으로 향상시키고 원거리 교육, 원거리 의료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모바일 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 속도와 안정성 향상을 실현

◦ 2019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광대역 통신비용 평균 15% 인하, 모바일 데이터비용 20% 이상 인하를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번호 이동(携号转网)’을 가능하게 함.

- 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

◦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원천 혁신을 강화하며,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국가 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 중점 실험실 시스템을 재구성함.

◦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조직 관리를 개선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혁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요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지원함.

◦ 과학기술 혁신 자원의 개방과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

- 대중창업과 만중혁신을 심화

◦ 더 많은 사회주체가 혁신 및 창업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자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창업 시범기지의 견인 역할을 강화함.

◦ 포용적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월 매출액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세우대 정책을 실시함.

◦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커촹반(科创板, 과학혁신판) 설립시에 등록제를 시범 실시하며, 혁신과 창업 금융

채권 발행을 장려하고 지적재산권 담보융자를 확대하여 창업투자 발전을 지원함.
◦ 인재육성, 활용, 평가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귀국 유학생과 외국인 인력서비스를 개선함.
-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좀비기업' 퇴출 실시방법을 제정함.

❑ 거시정책의 적절한 조정

- 거시정책은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 실시하고, 적절한 미세 조정을 통해 총 수요의 안정을 확보함.
-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대규모의 감세와 비용 인하 조치를 실시하며, 지방정부 특별 채권 규모를 대폭 확대함.
◦ 2019년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전년대비 0.2%p 증가한 2.8%, 재정적자 규모는 2조 7,600억 위안으로 예상되며, 그 중 중앙과 지방 재정적자는 각각 1조 8,300억 위안과 9,300억 위안 수준이 될 전망
◦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통해 지방정부 융자를 확대하였으며, 2019년 지방정부 특별 채권은 전년대비 8,000억 위안 증가한 2조 1,500억 위안으로 중점 프로젝트 건설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정부 채무리스크를 완화함.
◦ 지출구조 조정과 고도화를 추진함.
-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합리적이고 풍부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며, 통화정책의 전달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직접융자 비중을 높여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높은 대출비용 문제를 해결함.
◦ 광의통화(M2)와 사회융자 규모 증가속도는 GDP 명목 성장률과 부합해야 하며, 대규모 통화 공급 확대 방식은 지양
◦ 통화 신용 공급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지급준비율, 금리 등 양적 및 가격수단을 적절히 활용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공급 확대와 대출비용을 낮추도록 함.
◦ 중소은행에 대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자금이 민영 및 중소기업 대출에 사용되도록 함.
◦ 대형 상업은행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본을 보완하도록 지원하고, 신용대출 공급능력을 높이며,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과 신용대출 확대를 장려함.
◦ 2019년 대형 국유 상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30% 확대, 은행과 중개서비스 수수료 비용을 규범화함.
◦ 금융기관의 내부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포용적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며, 종합 융자비용의 인하를 추진함.
◦ 금리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통화정책의 전달수단을 원활히 하며 실질금리 수준을 낮춤.
◦ 융자 신용지원 수단을 설립하고 채권발행을 확대하며 커촹반(科创板)을 통해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금융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개선함.
◦ 금융 시스템 구조조정과 고도화 중심의 금융 체제 개혁을 통해 민영은행과 지역사회 은행을 발전시키며, 지방도시의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신용사의 전통업무를 추진함.
◦ 금융인프라를 개선하고 관리감독과 서비스 능력을 강화함.

❑ 강한 국내시장 형성

-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수정된 개인소득세법 실시로 감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약 8,000만 명인데 이러한 우대정책을 통해 향후 시장 잠재력은 더 확대될 것임.

- 최종 수요를 만족시키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며, 교육, 양로, 의료,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을 더욱더 발전시킴.
- 소비수요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수제품과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며 민간자본 진입을 저애요소를 제거함.
- ◦ 중국 60세 이상 인구수는 2억 5,000만 명으로 양로(특히 지역사회의 양로) 서비스 발전이 필요함.
- 자동차의 안정적 소비를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기 및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충함.

❑ 투자의 핵심역할 강화

- 2019년 중앙예산 가운데 투자항목에 전년대비 400억 위안 증가한 5,776억 위안을 배정
- 제조업 기술개선과 설비교체 지원을 확대
- 국가발전 전략에 맞춰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
- ◦ 철도 투자액 8,000억 위안, 도로 및 수운 투자액 1조 8,000억 위안, 그밖에 중요한 수리공사(水利工程)를 신규 착공하고 촨장(川藏, 쓰촨-티벳) 철도 계획 건설을 가속화 할 것임.
- 5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인공지능, 공업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강화
- 프로젝트 융자방식을 혁신하고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의 자본금 비중을 줄이며, 개발금융(PF)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이 중점 분야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 민간 투자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정부와 사회자본의 제휴를 추진함.

❑ 경제 체제개혁 추진

- 구조개선정책(结构性政策)들로 시스템과 체제 구축을 강화
- ◦ 국유자본과 국유기업, 재정조세와 금융, 토지, 시장진입, 사회관리 등 분야의 개혁을 지속함.
- ◦ 경쟁정책의 기초지위를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빠른 성장을 장려함.
- '사량팔주(四梁八柱, 4개 대들보와 8개 기둥, 중국의 개혁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함을 의미)' 방식으로 미시주체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며 개혁을 추진함.
- 국유자본과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고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를 추진함.
- ◦ 공정경쟁 원칙하에 국유자본의 운영방식을 기업 관리에서 자본관리로 전환하고, 국유자본 투자회사와 운영회사를 각각 설립하며, 혼합소유제 개혁을 적극 추진함.
- 전력, 가스, 철도 등 분야의 개혁을 심화함.
- ◦ 자연독점 산업은 산업별 특징에 따라 철도망 인프라와 운송 분리(网运分开)를 실시하여 전면적으로 시장을 통한 경쟁구조를 추진함.
- ◦ 중국 총 철도공사에 대한 주식제 개혁을 가속화함.
- 지방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함.

◦ 지방정부의 채무 융자 메커니즘을 규범화함.

- 민영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법치화 된 제도 환경을 구축하여 민영기업인의 신변 안전과 재산안전을 보장함.

◦ '두 가지 확고부동(两个毫不动摇, 국유경제 발전과 비국유경제 발전 추진)'을 견지하고 비국유경제 발전을 장려·지원·유도함.

◦ 경쟁 중립 원칙에 따라 요소획득, 진입허가, 경영, 정부조달 및 입찰 등 분야에서 어떠한 소유제 형태의 기업이라도 동등하게 대우함.

◦ 새로운 정부-기업 관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기업 간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민영경제 발전 고도화를 촉진함.

◦ 지적재산권 보호를 추진하고, 침해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오심하였거나 억울하게 처리된 안건의 잘못을 바로잡음.

◦ 기업가가 안심하고 기업 경영에 주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추진함.

❑ 전방위적인 대외개방 추진

- 새로운 형세와 특징을 파악하여 상품과 요소이동식 개방에서 제도적 개방으로의 전환을 추진함.

- 시장진입기준을 완화하고,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 실시하며, 중국 진출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리(특히 지적재산권)를 보호하고 독자경영 허용 범위를 확대함.

- 수출입 무역규모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원화를 추진하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비용 경감 추진

- 대외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경제 협력과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함.

-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을 촉진함.

◦ 다양한 수출시장을 발굴하고 수출 신용보험 범위를 확대함.

◦ 전자상거래 등 신 유망업종 지원정책을 마련함.

◦ 서비스무역의 혁신을 추진하고, 가공무역 고도화 및 중서부지역 이전을 유도하며, 종합보세구의 역할을 강화함.

◦ 수입구조 고도화 및 규모를 확대하며,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통관 원활화 수준을 높임.

- 외자유치를 확대함.

◦ 시장진입기준 완화, 외자 진입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대상 축소를 통해 더 많은 분야에서 외상독자 경영을 허용

◦ 금융 산업의 개혁개방 조치를 실시하고 채권시장의 개방정책을 마련함.

◦ 국제 경제통상 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정책 투명성과 집행 일치성을 향상시키며, 국내외 기업에 동등한 시장환경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함.

-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해 더 큰 개혁 혁신 자주권을 부여하고,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범위를 확대하며, 하이난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추진과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구 건설을 모색함.

◦ 각종 형태의 국가급 산업단지(경제개발구(开发区), 첨단기술구, 경제신구(新区))에서 자유무역시범구의 관련 개혁 시범 추진을 지원하고 해당 시범구의 견인역할을 강화하여 개혁개방의 고지(高地)를 확보함.

◦ 중국의 투자환경이 점점 개선되면 해외기업은 중국에서 더 많은 발전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임.

-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함.

◦ 공동 협상, 공동 건설, 공유를 견지하고 시장원칙과 국제 규칙에 따라 기업의 주체역할을 통해 인프라 상호연결을 추진하고 국제 생산협력을 강화하며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확대함.

◦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통해 대외 투자 협력 발전을 추진함.

-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함.

◦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 원칙을 수호하며, WTO 개혁에 적극 참여할 것임.

◦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역내 전면적 경제파트너 관계 협정, 한·중·일 FTA, 중·유럽 투자협정 협상 등을 추진하고 중·미 통상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민생 보장과 개선 강화

- 2019년 재정수지 균형 압박이 커지겠지만, 민생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임.

◦ 사회의 역량을 집중해 非기본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대중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킴.

- 일자리 창출 우선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함.

◦ 2019년에 최초로 일자리 창출을 거시정책에 포함시켰는데 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음.

◦ 특히 대졸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의 취업에 역점을 둠.

-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확대하고, 수준을 높임.

◦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도농 의무교육의 통합적 발전을 추진함.

◦ 농촌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도시학교의 '과밀학급(大班额)' 문제를 개선하고 도시진출 노동자의 자녀교육을 보장하며, '인터넷+교육'을 발전시켜 우수자원 공유를 촉진함.

◦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취학 아동 교육을 확대하고, 국립과 민영유치원을 동시 발전시킴.

◦ 교육예산의 GDP 비중을 4% 이상 유지하고, 1조 위안 이상의 중앙재정을 투입함.

- 기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함.

◦ 도농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과 중대 질병에 대한 보험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주민의료보험 1인당 재정 보조금을 30위안 인상하며 절반은 중대 질병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

◦ 중대 질병에 대한 보험 청구 기준은 낮추되 보장비율은 50%에서 60%로 상향하여 중증 환자와 경제 상황이 어려운 환자의 부담을 낮춤.

◦ 중대 질병 예방을 강화함.

◦ 중국에만 수천 만 명 암 환자가 있는데, 암 예방을 위해 검진, 연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만성질병을 예방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관련 약품을 의료 청구범위에 포함해야 함.

◦ 아동 약품에 대한 R&D를 강화해야 함.

◦ 희귀병 약품 보장을 강화해야 함.

◦ 의료보험 지급방식을 개혁하고 지출구조를 고도화해야 함.

◦ 이동인구와 자녀를 따라 이주한 노인들이 보험 등록지외에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함.

3. 결론

❏ 2019년 중국경제의 키워드: 안정, 미시, 개혁

- 현재 중국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과 정책의 핵심은 바로 '안정'임.
  ◦ 2018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고용, 무역, 외자, 투자, 소비, 예측' 등 '6가지 안정' 목표가 제시됨.
  ◦ 공급측 구조개혁, 적극적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 모두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과거 정부의 거시정책 위주에서 거시와 미시가 결부된 정책조합으로 전환함.
  ◦ 특히 미시부분을 강조해서 미시주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구체적으로 더욱 큰 폭의 감세조치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가의 능동성을 향상시킬 것임.
-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미시주체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함.
  ◦ 시장주체 관련 국유기업, 금융재정과 조세, 대외개방 관련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임.

❏ 2019년 경제전망

- 2019년 3월 양회에서 제시된 경제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임.
- 2018년 해외환경에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경기둔화의 주요요인은 국내 금융 분야로 볼 수 있음.
- 2019년 국내적으로 많은 정책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재정 금융 관련 정책조정과 미시주체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국내 환경은 2018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겠으나, 외부 환경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으로 2019년에 중국경제는 더딘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경제성장률은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질의응답(Q&A):

Q 1. 올해 국내문제보다는 해외환경 악화가 중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중 무역협상이 만약 상반기에 타결되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작년 7월 2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는가?

A 1. 미·중 무역협상은 상반기 중으로 타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됨. 중국정부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음. 타결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학술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다고 생각함.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0.3%p~0.4%p 정도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음.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은 정책조정을 통해 대응 가능하며, 여전히 조정

가능한 여지가 있음. 예를 들어 현재 중국정부는 2019년 재정적자율을 2.8%로 설정하였는데 만약 상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자율을 확대할 수도 있음. 또한 통화정책으로는 지준율이나 기준 금리를 인하 조정할 수도 있음. 즉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지라도 중국정부는 정책조정을 통해 6%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함.

2018년에 미ㆍ중 무역분쟁이 중국에 미친 영향은 실질적이기 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더 컸음. 2018년 중국의 수출(대미 수출 포함)은 좋은 양상을 보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인상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적자를 줄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2018년 미국의 대중 적자는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되었음.

Q 2. 일대일로 사업이 중국경제 성장에 장단기 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2.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경제에 대해 장단기 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단기적으로는 수출과 무역 다원화를 촉진할 수 있음. 특히 현재 미국 등 국가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 다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함.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ㆍ국가와의 무역균형을 도모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개선을 통해 상호 연결을 강화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연선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세계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음. 현재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는 각각 30%에 육박하는데 이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 아울러 연선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국가별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인데 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더 큰 발전기회를 가져다줄 것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취지는 공동발전과 윈윈 결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완전히 다름.

Q 3. 2018년 3월 무렵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약 6.2~6.3이었는데 현재 6.7로 약 8% 절하된 수준이며, 중국의 수출량이 감소되지 않았는데 이는 환율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함. 현재 미ㆍ중 협상에서 환율문제가 어느 정도 개입되었는가? 향후 협상이 타결되거나 타결되지 않았을 때 환율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A 3. 사실 미ㆍ중 무역협상에서 환율은 중요한 문제점이 아님. 물론 미국은 중국이 관세 인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를 절하시키지 않을 것인가 등 우려는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중국정부는 환율을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로 삼지 않을 것임. 작년에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위안화 절하압박이 증대되고 실제로 절하되었지만 이는 정부가 간섭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시장 예측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오히려 중국정부는 위안화 환율 절하 폭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했음. 미국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

향후 환율정책은 시장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율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임. 특히 대국은 안정적 환율이 필요함. 물론 시장변화를 반영하게끔 환율변동은 다소 있을 것임. 하지만 시장화 방식에 따라 환율변동을 추진할 것임.